

출장 보고서

한미경제학회(KAEA) 창립 25주년 행사 참석 및 사회적 기업정신 국제회의 준비를 위한 미국 및 캐나다 출장

1. 출장자: 선임연구위원 심상달

2. 출장기간: 2010년 1월 3일 ~ 2010년 1월 13일

당초 계획된 출장기간은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나고 신년업무가 시작되는 시기로, 업무 변동이 잦은 기간이었기에, 캐나다의 Roots of Empathy와의 면담일정을 출장기간 이내에 잡지 못하였음. 뿐만 아니라 1월 6일 Ashoka 재단과의 면담 이후 CEO Bill Drayton으로부터 추가논의 제의를 받아 출장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3. 출장지: 애틀랜타(Atlanta), 워싱턴(Washington, D.C.), 토론토(Toronto)

4. 출장의 배경 및 목적

- 한미경제학회(KAEA) 창립 25주년 행사 참석 및 국제학술지(SSCI) 등재를 위한 추천 요청
 - 한국개발연구(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는 2007년 12월 30일 SSCI 등재 신청을 한바 있으며, SSCI 등재를 위한 중요한 심사를 앞두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저널 전문가로부터의 e-journal에 대한 추천이 필요함
 - 이에, 한국개발연구의 전략적 파트너인 한미경제학회(KAEA)의 창립 25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창립기념을 축하함과 동시에 한미경제학회 회원들에게 저널 등재를 위한 추천 및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고자 함
 - 아울러 톰슨사(Thomson Reuters)에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업무협의를 추진하고자 함
- 사회적 기업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
 - 6월 초 개최예정인 국제회의 준비를 위하여 Ashoka 재단, Roots of

Empathy 등의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 수집을 하고자 함

5. 주요활동사항 (2010년 1월)

일정	출장 여정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면담자
3일	서울→애틀랜타	KDI연구위원 Recruiting T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국 AEA Meeting 세션참석 연구위원 후보자면접 KAEA 환영만찬 참석 	KAEA 현 회장단 및 차기 회장단
4일		한미경제학회 (KA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위원면접 KAEA 25주년 창립기념 행사참석 KAEA로부터 감사패 수상 KAEA측에 KDI 저널의 SSCI 등재를 위한 협조 당부 	KDI 응시 후보자 및 KAEA 회원
5일	애틀랜타→워싱턴	한국경제에 관한 패널토론회 (KAEA 주관)	패널토론회 참석 후 워싱턴으로 이동	
6일		Ashoka 재단	한국에 Social Entrepreneurship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사회적 기업가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에 관한 논의를 함	Bill Drayton (CEO) / Diana Wells (President)
7일		톰슨사 (Thomson Reu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KDI 저널의 최근동향을 보고 현재 등재심사 진행 상황 및 등재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 KDI 저널에 대한 등재추천이 미흡함을 확인하고 적의 조치 특히, 최근 저널에 논문기고가 증대하여 금년부터 분기별로 발행 →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논문이 실린 금년 1/4 분기 호를 수령한 후 등재심사의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 	Anne-Marie Hinds (Editor, Social Science)
8일		Ashoka 재단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 발굴 단체설립 방안에 대한 추가논의	Bill Drayton (CEO)
9일				
10일	워싱턴→토론토		토론토로 이동	
11일	토론토→서울 (도착 13일)	Roots of Empathy	Roots of Empathy 프로그램의 관한 문의 및 자료조사 후 귀국	Mary Gordon (President)

6. 출장에 대한 소고

가. Empathy¹⁾의 의미

-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든 Empathy는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 지를 이해하는 것(the ability to identify with the feelings and perspectives of others)으로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공감(Sympathy)과는 다른 개념임
- Emotional Literacy(감성능력): the ability to understand feelings, have the language for the feelings of his own as well as others. 자신의 감정 상태를 식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다양한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 ▶ Roots of Empathy 프로그램은 이러한 감성능력(Emotional Literacy)을 개발함으로써 Empathy 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수집한 자료 정리하여 만든 별첨Root of Empathy 소개서 별첨자료 참조)

나. Ashoka 재단의 Bill Drayton을 만나고서의 느낌

- 소탈하고 겸손한 정감있는 아저씨
 - Social Entrepreneurship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고안해 내고, 노벨상을 수상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가의 첫마디는 매우 감동적이었음
 - Arlington까지 자신을 방문해준 것과 사회적 기업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음
 - 직원들과의 만남도 주선
 - 또한 그는 자신이 보내주기로 약속한 자료를 송부해 줬을 뿐만 아니라 Arlington에 두 번씩 방문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음
- 국제회의 보다는 사회적 기업가의 가능성을 지닌 한 사람을 발굴하는 데에, Ashoka 재단과 같은 기관을 한국에 보급시키는 데에, 그리고 한국에 Changemaker를 양성 하는데 관심이 있음
 - 처음 국제회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시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음
 - 중국이나 일본에 Ashoka 지부를 만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Ashoka Fellow 후보자가 선정되면 인터뷰 심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에 가는 길에 국제회의에 참여하겠다고 함(자

1) Empathy의 적절한 번역은 情感임. 'Empathy가 있는 사람'을 '공감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기에는 그 뜻이 잘 전달되지 않으므로 '정감이 있는 사람' 또는 '공감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야 함.

신이 초청받는 국제회의에 모두 참석할 수 없으므로)

- 향후 Ashoka 한국지부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출장자가 착한기업 사랑의 줄잇기(Empathy Shop Love Bridge)를 운영한다고 하자 관심을 가지고 Ashoka Fellow를 인터뷰 하듯 계속된 질문을 던졌으며, 한번 더 면담을 하기도 하였음

다. 캐나다의 Root of Empathy 창설자/회장, Mary Gordon에 대한 느낌

Lovely Lady

- Bill Drayton에게 Mary Gordon을 만나러 간다고 전했다니 "Mary is a Lovely Lady"라고 하였는데 정말로 적절한 찬사였음

Empathy에 기반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에서 Empathy를 발현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Mary Gordon은 새로운 직원, 새로운 방향 등 새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림. 또한, 같은 선상에 있는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동료와 공유함
- 방문한 손님을 직원회의에 초청하여 서로를 소개시켜줌
-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고 자신들의 매뉴얼과 자료를 모두 모아 주었음

라. ASSA Meeting

직원채용 면접을 위해 출장 가는 면접관들이 ASSA Meeting의 유익한 세션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면접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출장자는 한 세션에 참석하였음. 마틴 웰드스타인(Martin Feldstein), 올리비에 블랑샤(Olivier Blanchard),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논하는 거시경제 세션이었는데 유익하였음
 - 이러한 세션에 원장님 이하 면접하러 온 KDI 동료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음

7. 출장 후 공유하고 싶은 정보

가. 애틀랜타 공항의 불친절함

번거로운 수하물 검사 및 취득 수속: 짐을 찾아온 다음에 다시 짐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나. 국내선 이용 시의 수하물 추가비용 부과

- 미국의 경우, 국내선 종업원의 부주의로 국제선에서 연결되는 국내선 항공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을 지불할 번 하였음. 주의 요망

다. 토론토의 전철과 버스

- 공항에서 시내 방향의 버스를 타면, 버스가 전철역 속으로 진입하면서 환승요금 없이 지하철로 연결이 됨
 - 토큰: 2불 50
 - 동전: 3불 (지폐 5불을 내면 거슬러 주지 않음)
- 같은 거리를 택시로 가면 50-60불
- 전반적으로 버스, 전철 모두 편리함

8. 수집자료

Books and Catalogues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Catalogue for Allied Social Science Associations』, Atlanta 2010.

Ashoka Foundation, 『Selecting Leading Social Entrepreneurs』

Bill Drayton, 2006, 『Everyone A Changemaker: Social Entrepreneurship's Ultimate Goal』, MIT Press with Harvard University and George Mason University.

Mary Gordon, 2007, 『Root of Empathy: Changing the World Child by Child』, Thomas Allen Publishers.

Mary Gordon, 2000, 『Roots of Empathy Curriculum Manual: Volume 2』, Roots of Empathy.

Mary Gordon and Melanie Gordon, 2009, 『Faces of tomorrow』, Seeds of Empathy.

Roots of Empathy, 2007, 『Roots of Empathy Program Information: for Parents』

Roots of Empathy, 2007, 『Roots of Empathy Program Information: for School』

VOD

「Mary Gordon at Althouse College - Big Ideas TV Ontario」 &
「Mary Gordon Interview: Eye to Eye CTS Television」, Feb. 2006.

Roots of Empathy, 「CBC TV: The National ROE Documentary」, Sep. 2006.

「Roots of Empathy featured on CTV Success Story」, 2003, Bell Globemedia INC., Courtesy of CTV News

Root of Empathy, 2001, 「What is Roots of Empathy?」

(별첨)

Roots of Empathy 프로그램 안내2)

1. Roots of Empathy 프로그램의 개요

Mary Gordon에 의해 1996년 캐나다에서 창설된 Roots of Empathy(이하 ROE)는, 아이들의 공감능력(Empathy)향상을 통한 평화롭고 배려심 있는 시민사회 건설을 그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ROE는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공격성향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사회적/정서적 능력 및 공감능력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1-3학년,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으로 편성된 4개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ROE 프로그램은 농촌, 도시, 외각 지역 및 원주민 사회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뉴질랜드, 미국, 맨 섬 등지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ROE는 공감능력을 향상시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공격성향 및 약자 괴롭힘(bullying)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음 세대의 책임감 있는 시민정신과 반응적 육아(responsive parenting)를 위한 역량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2. 공감능력(empathy)과 가정환경

가. 정서/정감교육의 중요성 및 도입의 필요성

학교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 약자 괴롭힘(bullying), 학원폭력, 방관 등의 현상은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학식과 교양 못지않게 협조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던 과거의 '전인격적 지성'은 과학기술과 합리주의의 발전, 이에 따른 지식편중 교육에 의하여 분할되기에 이르렀다. 전인격적 지

2) 수집자료중 Mary Gordon, 2007, 『Root of Empathy: Changing the World Child by Child』, Thomas Allen Publishers. Roots of Empathy, 2007,의 1-3장과 『Roots of Empathy Program Information: for Parents』 Roots of Empathy, 2007, 『Roots of Empathy Program Information: for School』을 참조하여 만든 것임

성이 분할되는 과정에서 과학의 객관성과 합리성에만 무게가 실리면서 지금과 같은 지성의 파편화 및 불균형화 현상이 야기된 것이다. 즉, 지식과 과학의 중요성은 비대해진 반면에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은 약화되었고, 그 결과 약자 괴롭힘(bullying), 집단 따돌림, 학원폭력과 같은 반사회적인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된 '중학생 알몸 졸업식 뒤풀이 사건'은 획일적인 지식만을 강조하는 교육시스템의 부작용으로, 학교폭력이 대물림·공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편중 교육이 인간성을 상실케 하고 도덕적 가치를 저하시킨다는 반성에서 '도덕교육'이 도입되었다. 도덕교육의 목표는 도덕성을 함양하여 도덕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도덕교육은 이성 중심적인 교육관을 바탕으로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도덕적 지식과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데에만 주력해왔을 뿐, '정서'의 역할은 주목 받지 못했다.³⁾ 그러나 사실, 비도덕적 행동은 인지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 많은 부분이 정서적인 결함(공감능력 및 배려심의 부재)의 문제인 바, 최근 '감성능력(emotional literacy)',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정서교육' 혹은 '정감교육(empathy education)'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나. Empathy란 무엇인가?

감성지능 혹은 감성능력이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식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반응), 자신의 감정을 다양한 어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맺고 관리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서의 Empathy란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식별하고, 그것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타적 행동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Empathy는 인생의 전 단계에서 유능한 육아생활(competent parenting)과 성공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다. 정감교육과 가정환경

감성지능 및 공감능력의 계발을 위해서는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적기에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간의 정서적 특성은 초기 유

3) 남궁 혜영, 2008, 「도덕교육의 정신분석학적 접근과 그 의미 - '정서'와 '치유'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쪽 참조.

아기에 형성되며, 정서적 특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체는 부모라는 점이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감성의 세계는 생후 1년 동안에 결정적으로 형성된다고 한다. 자기 신뢰, 자아인식, 자기 억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된 마음,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등은 이 시기에 가정을 통해 아이에게 형성되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Fraser Mustard 박사와 Margaret Norrie McCain 명예박사가 Ontario 주정부를 위해 작성한 유년시절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임신부터 생후 6년까지의 유년시절은 아이들의 두뇌발달과 학습능력, 행동 및 건강에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이들의 두뇌 신경세포의 연결 및 확장이 진행되는 생후 3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히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는 사랑 속에서 상호작용을 이루며, 자녀의 욕구를 적절히 만족시키며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한다.⁴⁾

요컨대, 정감교육과 공감능력(Empathy)의 형성에 있어서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다. 또한 최초의 대인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가 공감능력 및 도덕성 형성의 출발점인 바, 모든 정서/정감 교육의 시발점은 가정으로 회귀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3. Roots of Empathy의 창설배경 및 목적

가. 창설배경

초등학교 교사였던 ROE 창설자 Mary Gordon은 수년간의 경험 끝에, “우리 교육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사회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정신적 이해력과 사회적 능력을 부여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녀는, 많은 아이들에게 학교는 두려움과 불쾌함이 공존하는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며, 약자 괴롭힘(bullying), 폭력, 따돌림 현상 등 이 사회의 모든 악덕은 바로 공감능력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존하는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민해본 결과, Mary Gordon은 정감교육의 필요성과 공감능력형성에서의 가정의 영향력을 인식하게 된다. 그녀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배움의 관계이며 가정환경은 아

4) Mary Gordon, 2009, 『Roots of Empathy』, The Experiment, pp. 17-18.

이들의 학습능력 및 자아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 부모는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스승으로,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 겪는 경험들은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친다. 특히 아이들의 자기 확신, 자아개념, 개방성, 사교성 등은 부모에게 받은 육아의 수준과 긴밀하게 얽혀있다.

이 같은 취지에서 Mary Gordon은 25년 동안 부모와 아기를 만나면서 부모와 자녀관계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이런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공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진지함 및 성실성을 가정(假定)으로 한 이 프로그램들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사랑과 격려, 감정적인 교류, 진실한 대화, 의미 있는 놀이활동 등을 통해서 공감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

1996년 메이트리 재단(Maytre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Roots of Empathy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pilot test)을 실시했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ROE 프로그램은 중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되었다. 담당 학교 선생님들은 ROE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상당한 수준의 감성능력을 기르게 되며, 건강한 자의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보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평가했다. 청소년 임신으로 학생들의 자퇴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 대상 연령대의 학생들의 사회적/감정적 측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수정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ROE는 이 학생들에게 아기와 대면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아기는 최선의 육아를 할 수 있는 부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였다. 더불어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와 산모가 겪을 혼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육아를 통한 이 같은 ROE 교육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과 대화하고, 육아의 현실적인 측면을 이해하게 된다.

요컨대 공감능력(empathy)의 근원은 가정이며, 육아 과정에서 형성된다. 공감능력은 육아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성이며, 아이들은 이 같은 공감능력을 통해서 올바른 육아 개념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감성적인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이 같은 취지에서 Mary Gordon은 취학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실에서 부모와 갓난아기의 관계 - “가정” - 를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Roots of Empathy를 탄생시켰다.

나. 목적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공감능력(empathy)과 감성능력(emotional literacy)을 계발시켜, 약자 괴롭힘(bullying), 왕따, 공격성향 및 학원폭력을 감소시키고, 친사회적 성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인간발달 과정 및 유아안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책임감 있는 시민정신(citizenship)과 반응적 육아(responsive parenting)를 위한 준비를 가능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

4. Roots of Empathy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방식

가. 교육내용

거듭 언급했듯이, ROE 프로그램의 핵심은 ‘가정(아기와 부모)’을 통한 ‘정감 교육’이다.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갓난아기와 부모의 교실방문은 ROE 프로그램의 시발점이자 구심점이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부모와 갓난아기의 관계를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유아의 취약함을 이해하고 부모와 아기가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 또한 아기의 감정 상태를 관찰하면서 학생들은 자기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식별하고 이해하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empathy)을 배우게 된다. 즉, ROE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감성능력과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가족방문 전/후 수업에서 학생들은 아기의 성장과 자기자신의 성장을, 아기의 감정과 자기자신의 감정을 비교해본다. 한 예로, 아기가 계속해서 홀로 일어나려고 노력하다가 반복해서 넘어질 때, 아이들은 야구를 하던 중 날라오는 공을 번번이 치지 못하고 아웃 될 때 느끼는 절망감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아기가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숙제가 생각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감 같은 것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러한 대화는 많은 아이들이 표현하지 못한 채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면에 드러내어, 감정순화기능을 증진시켜준다. 이 가운데 학생들은 서로를 돕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표현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모범적인 육아의 실제 모델을 봄으로써 아이들은 올바른 육아지식을 익힐 수 있고, 미래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자질을 갖추게 된다.

ROE 프로그램은 나의 감정을 아프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 또한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 배려하는 교실, 나아가 사회를 만들도록 가르치고자 한다. 타인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여 타인에게도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연대의식’이 형성되어 아이들은 더 이상 학급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약자 괴롭힘(bullying), 폭력 등의 행동들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취학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공감능력을 가르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협동심과 상호의존성 및 올바른 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보다 건강한 사회건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나. 교실방문 프로그램의 개요

ROE 교육과정은 크게 4개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1-3학년,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이 이에 해당한다. 연간교육 계획안은 9개의 주제와 총 27번의 Roots of Empathy 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는 3번에 걸친 Roots of Empathy 방문 프로그램 (Pre Family Visit, Family Visit, Post Family Visit) 으로 다루어진다.

9개의 주제

- 아기와의 만남
- 울음
- 배려(caring)와 계획
- 감정
- 수면
- 안전
- 의사소통(communicating)
- 나는 누구인가?
- 작별인사(goodbye and good wishes)

Roots of Empathy 방문 프로그램

구분	내용
가족방문	가족방문 이전 단계로, Roots of Empathy 교사에 의해 총 9번에 걸친

이전단계	수업이 진행된다. 각 수업은 40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유아(infant) 발달과 가족방문수업을 위한 준비가 주요내용이다. 학생들은 아기로부터 어떠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예상을 한다.
가족방문 단계	Roots of Empathy 교사, 아기, 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Family Visit 수업은 30분간,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Roots of Empathy 교사는 학생들이 아기의 감정을 관찰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은 아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기의 발달과정과 기질을 인식하고, 그것들에 대해 토론한다.
가족방문 후 단계	가족방문 이후의 단계로, Roots of Empathy 교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40분씩 9회에 걸친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터득한다.

ROE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4개의 연령대에 맞게 특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섯 살 정도의 아이들은 신체활동이 활발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배운다. 이는 다섯 살 수준의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며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기를 좋아한다는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반면, 열 살 정도의 아이들은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와 함께 감정의 전이와 복합된 감정상태의 복잡함에 대해서도 배운다. 이 같이 차별된 교육방식은 각 연령대의 아이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ROE 가족 방문수업뿐만 아니라 방문 전/후의 수업들을 통해 9개의 주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인 수업내용을 살펴보자면, 방문 전 수업시간을 통해서 강사는 학생들에게 주제를 소개하고 아기의 성장과정에서 각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며, 아기가 방문할 때 그 주제에 관한 아이의 행동에 대해 예측해보게끔 한다. 또한 실재와 유사한 아기 인형으로 아기를 안는 방법 등에 대해 연습하기도 한다. 방문 후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자신이 유아 시절에 느꼈던 감정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한다. 이 같은 ROE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규수업시간에 활용되기도 한다.

다. ROE 가족 선정

“아기는 신체적, 사회적, 감성적, 지적, 도덕적, 영적으로 전인격적인 인간이 성장하는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실험실이다.”
- Mary Gordon

결국, ROE 프로그램의 구심점은 ‘아기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갓난아기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수하게 감정을 표현한다. 성장과정 혹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체득하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아기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감정적으로 소통하며,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신뢰한다. 이 때문에, 아기는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지를 가장 순수하게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ROE 프로그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기와 부모선정은 프로그램의 성패가 달려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ROE 가정의 선정과정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지역의 학교에 ROE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ROE 측은, 학교 교사와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공중보건 간호사, 청소년 분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자원봉사자에게도 조언을 구한다. 이들은 해당지역을 잘 알고 있고, ROE 프로그램의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풍부한 경험을 전달해줄 수 있는 가정이 어디인가를 조사한다.

이때 ROE는 자신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에 동의하며, 그들의 아기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생후 일년을 아이들과 공유하며 정기적으로 교실을 방문할 수 있는 가정을 찾는다. 또한 학교 근처에 거주하며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자 하며, '학교와 가정'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끈끈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편, 너무 딱딱한 아기나 부유한 가정을 찾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선정하고 있다. 아버지의 교실방문을 환영하기도 하며, 편부모 가정이나 소수민족 가정,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가정, 소외계층 가정을 ROE 프로그램에 초대하곤 한다.

ROE는 평균 생후 2개월에서 4개월에 해당하는 아기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이 시기로부터 1년간이 아기의 성장에 있어 가장 역동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1년 동안 ROE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광범위한 아기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5. Roots of Empathy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 및 평가

“ROE는 아이들의 공감능력(empathy) 발달이 어떻게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놀라운 결과를 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하지만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예이다. 마음(heart)은 건전한 정신 상태로 향하는 길이지만, 둘은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다. ROE는 사회와 학문을 통합하는 귀감이다.” - Michael Fullan (토론토 대학 교육연구소 명예교수)

“ROE는 학생들의 인성(student character)을 길러주는 효과적인 학교 기반 교육과정이다”
- Berkowitz and Bier (Missouri 대학교 인성 및 시민정신 교육센터)

“나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인간성장 과정 중 유아기에 대한 훨씬 많은 지식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 이 지식은 우리가 아이들을 연민이 충만한 사람으로 기르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Mary Gordon의 Roots of Empathy는 이러한 지식을 통합했고,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 Landon Pearson (캐나다 전 상원의원)

2000년 이후로 Roots of Empathy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8개의 독자적인 평가와 2개의 서평이 발표되었다. 이 같은 다양한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ROE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비참가자 표본에 비해 감정과 정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친구들에게 더 사교적이며, 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가. 긍정적인 결과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Alberta, Manitoba 정부가 실시한 8개의 연구과제들(순서대로 각각 5개, 2개, 1개)에 따르면, 비교대상 그룹보다 ROE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사회적/정서적 능력, 급우들 간의 친사회적 행동 성향(공유, 도움, 포용성), 공격성 완화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비교대상 그룹 아이들의 공격성향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악화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연구자들은 특히 공격성향을 선차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 집단 괴롭힘 등), 신체적 공격성, 관계적/사회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중에서 특히 선차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한편, ROE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비교대상 그룹에 비해, 학급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은 아이들에게 소속감과 수용성을 길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 오래 지속되는 프로그램의 효과

2001년 Manitoba 정부의 요청에 의해 측정된 ROE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친사회적 행동, 신체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정도를 살펴보면, 아이들

은 프로그램 이수 직후부터 모든 부문에서 개선된 행동을 보였다. 이 결과는 추후 3년 동안 더욱 더 향상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 연구결과의 의의

ROE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이견 없이 아이들의 공격성향 완화 및 친사회적 성향 제고를 ROE의 주요기능으로 꼽았다.

공격적인 어린이들은 청소년기에 성적 관리가 힘들고, 학교교육 이수율이 낮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술과 마약중독, 사고, 폭력범죄, 우울증, 자살시도, 배우자 폭행, 자녀방관 또는 학대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5년 후의 학문 성취도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이 그들의 현재 학과목 성적보다 더 정확한 척도가 된다고 밝혀진 연구결과에서 친사회적 성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OE 프로그램이 배양하는 이러한 자질은 아이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며,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아주 긍정적이고 항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ROE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사회적/감성적 능력 및 육아지식에 대한 이해력을 길러준다. 특히 육아지식의 증가와 공격성향의 감소는 아이들을 자격 있는 미래의 부모로 키워내기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성공적인 ROE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조건: 각 주체들의 의무 및 역할

널리 보급되고 잘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도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이 의도한 바에 얼마나 잘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ROE 프로그램은 교사의 조언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Mary Gordon의 ROE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업가 양성기관인 Ashoka 재단에서 주최하는 Changemakers Competition의 위협에 빠진 젊은이들(Young Men at Risk)이라는 주제에서 우승하였다. 수상소감에서 Mary Gordon은 ROE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과 교육청, 학교장, 교사들, 그리고 지역 내 부모와 갓난아기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그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연구들이 결론짓길, ROE 프로그램은 모든 필요조건들이 갖추어 졌을

때 비로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ROE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각 참여자들의 의무 및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체	의무
ROE 교사	<p>모든 ROE 교사들은 각각의 연령대에 맞게 짜인 교육과정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또한 가족방문교실 프로그램의 진행시에는, 이에 적합한 집중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멘토링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ROE 교사의 세부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27번에 걸쳐 교실방문수업을 진행한다. • ROE 교육과정(curriculum)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며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사전준비 한다. • 학년 초반에, RO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역할과 의의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 (담당 학급) 담임선생님과 각 수업에 요구되는 선생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 ROE 가족 및 담임선생님과 교실방문수업 일정을 조정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한다. • 프로그램 시행 전 ROE 가족방문을 실시하며, ROE 가족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부모가 교실방문수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	<p>교장은 지역사회 가정의 ROE 참여를 유도하는 의무를 지닌다. 아울러, 전 학급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시도(whole-school venture)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역할은 아래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E 소개발표에 참석한다. • “Roots of Empathy moments”를 학교 및 학교공동체와 공유한다. • 아기의 변천사를 알린다. • 학교 게시판 및 newsletter에 ROE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고, 학생들의 작품을 신는다. • 중앙현관에 ROE 게시판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 다른반 선생님, 손님, VIPs를 초대하여 참관수업을 연다. • ROE 정보를 타학교 및 학교 게시판에 공유한다. • 학교모임 및 학생 발표회에 ROE 가정을 초대한다. • 학년말에는 ROE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한다.
	<p>담임교사가 교장과 원활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ROE 교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ROE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학생들은 가장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담임교사는 교실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필기, 사진</p>

<p>학급 교사</p>	<p>촬영, 미술, 연극, 글짓기 활동을 보조하며 수업에 활발히 참여한다.</p> <p>ROE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들을 유리한 위치에서 관찰할 특별한 기회를 갖는다. ROE 프로그램의 효과는 담임교사가 ROE의 가르침을 정규수업에 어떻게 반영하고 연관 짓느냐에 달려 있다. 구체적인 학급교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E 소개 발표에 참석한다. • ROE 교사와 가족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 ROE 교사와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 ROE 수업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토론 내용을 플립 차트에 기록한다. - 가족방문 수업 시 사진촬영을 한다. - ROE 교사를 도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 ROE 미술작품 및 글짓기를 완성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준다. - 중앙현관에 게시판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 학년 말에는 ROE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한다. - 학생 허가양식(student permission form)을 모은다.
<p>부모</p>	<p>ROE 프로그램의 핵심은 가족방문수업인 바, 부모는 아기와 함께 1년간의 교육과정에 걸쳐 9번 학교를 방문할 의무를 가진다. 부모가 된 소감, 아기의 성장과정 및 학습 정도에 대하여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개방된 자세가 요구된다.</p>

7. 마무리

Bill Drayton은 Change-maker가 되기 위한 자질로 공감능력(empathy), 팀워크,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팀워크와 리더십은 공감능력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공감능력은 기본은 감성능력(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인데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인데 이러한 감성능력은 '감성능력'은 어려서부터 배양 되어야 한다.

Roots of Empathy는 갓난아이와 아이의 부모를 아이들의 교실에 초청하여 이들의 상호애착관계와 반응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공감능력의 기본인 감성능력을 아이들이 스스로 습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Roots of Empathy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감성능력들은 학교 내에서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의 육아의 질 제고 다른 학습능력과 창의성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감성능력은 인식적학습능력과 창의성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중학교 졸업식후 뒤풀이 행사가 해가 갈수록 폭력적이 되어가는 사태를 예방하고, 남을 배려하는 품격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하는 민간단체가 우리나라의 캐나다의 Roots of Empathy의 도움을 얻어 우리나라에 맞는 Program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몇 개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사회성과 인성이 현저히 좋아지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는 이를 다른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확산하고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도입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에는 교육당국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